

'3급 승가고시' 응시 자격기준 강화

조계종 10월부터 새 기준 적용...연수교육 이수 등 필수

앞으로 조계종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자격기준이 강화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 스님)은 오는 10월 9~17일 실시되는 제6회 3급 승가고시 및 연수교육의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해 4월 2일 발표했다. 조계종은 승가고시법이 개정된 2001년부터 3급 승가고시와 승가고시산림을 시행해왔다. 그간 1991~94년 수제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승가고시는 승가고시법 부칙에 따라 개편된 것으로, 승가고시법이 정한 응시자격에 의거해 3급 승가고시가 시행되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준과 응시 및 시험제도도 크게 바뀌었다. 승가고시법 제9조에 따르면,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승남 10년 이상인 자로서 구족계를 견덕(비구니 계) 법계 수지 후 교육원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선원 4안거를 성만해야 한다. 또는 법계 수지 후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거나 총무원장·교육원장·포교원장·교구본사 및 말사 주지가 임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4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 이 같은 응시자격을 갖추었더라도 교육원이 개회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해야만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연수교육은 출가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점검하고 도제 양성과 주

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교육부장 퇴후 스님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종단 주요 업무, 사회인식 등 다방면에 걸친 실무 연수 프로그램의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연수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승가고시는 <금강경> <조계종사>의 공통필수와 3군으로 나뉜 선택과목, 수행이력과 서류심사·면접검사로 진행된다. 수행평가는 이뤄진다. 논술에는 400점이 배정돼 각 과목 평균 60점 이상, 총점 24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수행평가에는 100점이 배정돼 역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논술시험은 100% 논술형으로 각 과목마다 3문항을 출제

해 2개를 선택해 답안을 작성하면 된다. 시험시간은 과목당 60분. 출제위원은 각 과목당 3명이 선정된다. 출제위원들은 시험문제 3문항을 출제하고 표준답안도 제시해 채점 시 혼란을 막을 예정이다. 또한 1, 2차 채점 결과 점수 편차가 큰 경우는 3차 채점을 실시해 채점 시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고시위원장 법산 스님은 "본격적인 승가고시가 시행되는 첫 해인 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새로워진 고시 기준에 따라 승가고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원은 '3급 승가고시 및

연수교육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교구본사 등에 발송했다. 3급 승가고시 연수교육 접수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해당 교구본사 및 교육원에서 받는다. 입교비 30만원. (02)2011-1801-4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3급 승가고시란?

승가고시는 스님들의 위와 자질을 점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일정 연한이 경과되면 치르는 일종의 자격고시다. 종단에 소속된 스님들은 승가고시에 합격해야 법계를 품수 받을 수 있다.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하면 비구 중덕, 비구니 정덕 법계를 품수 받게 되며, 중덕과 정덕 법계를 받아야만 사승과 주지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삼성특검 청원' 참회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이 4월 2일 삼성특검 청원에 대해 참회의 뜻을 밝혔다. 계종 원로·중진 스님 22명은 지난 3월 24일 '삼성특검의 조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청화 스님은 2일 '삼성특검 청원서'에 대한 입장'을 통해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살피지 못하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내용에 서명한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불찰"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스님은 "이런 일을 계기로 삼성을 비롯한 모든 기업들이 보다 정의롭고 성숙한 기업경영으로 전환하여 다시는 국민적 우려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조계종 7개 위원회 구성

제176차 중앙총회에서 의장단에 위원회 구성이 위임됐던 7개 위원회가 구성됐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자승)는 3월 31일 의장단회의를 열고 ▲승려노후 복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불교미디어(신문 TV 라디오 인터넷)관리위원회 ▲종단법요집 통일일을 위한 위원회 ▲불교규제 국가법령 체계정 특별위원회 ▲신촌 봉선사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흥천사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신흥불교 공증장교 파견 관련 대책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 선출은 각 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여수령 기자

'포살결계법' 입법 예고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지난 제176회 중앙총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포살및결계에관한법> 제정안을 4월 1일 입법예고하고 16일까지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종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전화(02-2011-1710)나 이메일(pjh65@buddhism.or.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4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포살및결계에관한법> 시행에 즈음한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4월 4일 현재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향후 진행될 공청회 일정과 시행령 제정 일정 등이 공개된다. 조계종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음력 4월 15일부터) 포살 및 결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여수령 기자

'불자대상' 후보자 공모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불기 2552년 불자대상' 후보자를 4월 18일까지 추천 받는다. 불자대상 후보자는 ▲불법홍포 ▲한국불교 위상 제고 ▲불자의 자긍심 고취 ▲종단 발전과 홍보 ▲국가 및 사회발전 등에 공로가 큰 불자면 추천 가능하다. 시상식은 5월 12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리는 불교 법요식에서 진행된다. 여수령 기자

비구·비구니 265명 수계

조계종 사미·사미니·식차마나니 265명이 3월 29일 구족계를 받고 정식 스님으로 재탄생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29일 김천 직지사에서 사미 138명, 식차마나니 127명 등 총 265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8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회향식'을 봉행했다. 구족계 수계식에서 앞서 28일에는 보살계 수계식이 진행됐다. 여수령 기자

"물러나야"... "하자없다"

태고종 보우승가회·승정원 등 성명 공방

도법사 매각 등 태고종 총무원(원장 운산) 행정집행에 의혹을 제기했던 태고종 보우승가회(회장 도산)가 본격적으로 운산 스님 퇴진 활동에 나섰다. 보우승가회는 4월 3일 조계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고종 총무원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도산 스님은 "투명하고 도덕적이어야 할 불교종단이 운산 총무원장 개인의 독단과 전횡으로 밀실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지난 3월 5일 태고종 중단중진간부회의에서 결의된 해종 행위가

엄중 처벌 등에 대해 "운산 총무원장은 자신의 뜻에 반하는 내부고발자로 매도해 해종 행위로 탈락하려 한다"고 성토했다. 스님은 "지난 3월 5일 태고종 중단중진간부회의시 제시했던 '총무원장 취임 후 투명하지 않은 행정의 흑사향' 11개 항목에 대한 답변은 말뿐으로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사찰을 교회에 현 시세지보다 낮게 매각한 것이 공론화되자 교회에서 성금조로 3억 2000만원을 더 받았다는 해

한 변명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산 스님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운산 스님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정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3월 31일 태고종은 승정원·원로회의·중앙총회·중앙사정원장 명의로 "도법사 및 극락사 매각은 종헌·종법과 사회법상 아무 하자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도법사 매각대금은 전승관 불사 및 도법사 이전 자금으로 사용했고, 극락사는 개인 재산이라 형식적인 재산처분을 승인했을 뿐"이라며 보우승가회의 주장을 반박하며 운산 총무원장에 대한 신임을 표명했다.

조동섭 기자



4월 4일 청도 운문사에서 보현율원 개원식이 봉행됐다.

청도 운문사 비구니율원 개원

봉녕·청암사 이어 3번째

청도 운문사(주지 진성)의 비구니율원 '보현율원'이 4월 4일 개원했다. 이로써 수원 봉녕사와 김천 청암사에 이어 세번째 비구니 율원이 문을 열게 됐다. 4일 열린 개원식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과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 운문사 주지 진성 스님, 보현 율원장 흥륜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개

원을 축하했다. 청화 스님은 "운문사 보현율원 개원을 계기로 계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많은 연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대애도(大愛道) 비구니의 계율정신에 의거하여 청정하게 수행하고 나아가 중생교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립 목적을 밝힌 보현율원은 앞으로 종단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비구니 스님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운문사는 율원 개원에 따라 교육장과 방사의 시설을 마련했다. 순법천 대구지사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6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예시이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영상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 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소개,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출판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원효성사 열반 1322주년 추모대재



"진리의 새벽을 여신 우리민족의 스승 원효성사의 추모대재에 불자여러분 다함께 모여 추모합시다"

◆일시: 불기 2552(2008)년 5월 4일 (일) 오전11시 ◆장소: 서울 효창공원 내 원효성사 성상 앞 ◆참석대상: 불교도 및 전통도

증명: 벽송

지도위원: 무진 정향 해봉 창해 법성 도선

봉행위원장: 향운

봉행부위원장: 운오 법선 성해 해담 도천 운학 태운 심상 해일 명관

집행위원장: 인담

부위원장: 원봉 지상 법선 호산 진산 영운 운영 금봉 석암 일륜 보각 법산 도봉 마명 명석

집행위원: 우석 상기 인명 대련 해공 불타 지호 자성 능인 지수 선정 삼륜 화운 혜정 도현

위원: 지견 무상 호산 보현 도경 운정 도공 성관 소연 효경 법산 청남 성목 청광 만덕 거산 장산 성광 활원 등명 향륜 운오 송주 현수 신라 원담 지암 의전 도연 대안 법천 청산 해원 성문 묘덕 영암 덕운 인월 창현 지수 득원 대원 운암 도각 정오 성원 원각 상경 진해 청화 경운 선무 범일 각초 해운 석암 지광 해운 정광 해인 월봉 선인 대련 만법 원오 법경 덕보 가화 오산 여산 지선 행선 환학 법진 지영 해광 중일 수진 무공 지현 지원 승현 정각 송정 환원 효경 성심 성화 자운 도의 동현 해광 용진 행공 도향 철산 성타 봉천 미선 무공 각진 법정 지영 법연 보현 현화 수연 법정 준운 성오 석진 무설 청림 지해 보명 만우 대천 지성 해명 보영 운정 해일 청암 호산 명수 보각 도해 지산 석경 청운 천수 득진 무상 경옥 마성 각 사암 신도회신행단체 일동

■주최: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관: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 052-262-6857 / Fax 052-263-0501
 연락사무소 : 02-735-0501, 0502 / Fax 02-736-3509